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ISSN 1227-7053 TEL.568-6651~2
568-5595~6
등록일:1988년2월19 FAX.568-6653

어항개발 수송시설 병행해야 항간거리 15~20km로 단축토록

예산도 태부족 수산예산의 40~50%반영

漁港協, 어항어촌발전 설문조사

어항은 어촌의 중심지이므로 어항개발이 어촌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항개발시에는 해안도로 진입로 주차장 등 수송시설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정어항의 항간거리는 현재 27.8km에서 15~20km로 단축시켜야 하고, 현재 어항 개발예산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는 수산관련예산의 40~50% 정도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중됐다.

한국어항협회가 최근 연안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구별수협 조합장, 어항시공 용역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항어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관련 기사 3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항개발이 어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6.4%(107명)가 「어항은 어촌의 중심지이므로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에 응답했고, 어항개발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기능시설에 대해서는(복수응답) 「해안도로 진입로 주차장 등 수송시설」에 45.2%(99명), 「냉동공장 가공공장 등 처리가공시설」에 20.1%(44명), 「급유 급수 제빙 등 기능시설」에 20.1%(44명), 「유어 낚시터 등 위락시설」에 8.2%(18명), 「진료소 선원휴게소 등 후생시설」에 6.9%(14명)가 응답했다.

앞으로의 어항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한다」에 86.5%(96명), 「조금만 더하면 된다」에 9.9%(11명)가 응답했고, 지속적으로 어항개발을 할 경우 평균 항간 거리에 대해서는 「15km」에 41.4%(46명), 「20km」에 24.3%(27명), 「10km」와 「짧을수록 좋다」에 각각 15.3%(17명)가 응답했다.

제2종어항의 경우 농어촌 특별회계 끝나는 2004년 이후의 재원조달을 현행과 같

이 국비에서 1백% 지원하거나 아니면 급급적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중됐지만 이다.

또한 완공어항의 개념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기본시설마저 부족한 실정으므로 2단계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에 35.2%(64명), 「기본시설 위주이므로 종합 기능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에 21.4%(39명), 「계획 상으로는 완공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완공어항으로 볼 수 없다」와 「구조물의 재배치 검토, 부분적 개량 보수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에 각각 20.3%(37명)가 응답했다.

이와함께 어항과 항만관련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가 구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에 64%(71명), 「성격 상 차이는 있지만 행정체제가 일원화되는 것이 좋다」에 33.3%(37명)가 응답했다.

수산물수입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산업은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

민식량 산업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항어촌 발전에 대한 한국어항협회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에 46%(51명), 「보통이다」에 28%(31명), 「높다」에 19.8%(22명), 「낮다」에 3.6%(4명), 「매우낮다」에 0.9%(1명)가 응답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연안시·도지사, 시장·군수, 지구별수협 조합장, 어항시공 용역업체 대표 등 총 1백97명을 대상으로 △제1·2·3

종 어항의 기본 기능 시설 △어선피해 및 어항관리 △어항개발 △주변정세 변화 △어항어촌 발전을 위한 의견 등 30 여개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백97명 중 1백11명이 회신, 56.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73명 중 55명(75.3%), 수협조합장은 83명 중 38명(45.8%), 어항시공 용역업체대표는 41명 중 18명(43.9%)이 회신했다.

한보사태는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우리 사회의 치부를 낱알이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성이란 역사적인 이야기이지만 한보사태로 인하여 말기 암환자처럼 수술도 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를 것이 뻔했던 국가경제, 정치 사회구조의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편린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한 사업가가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고 치자. 이 사업가가 신청에서부터 인허가를 얻기 위해 거치는 단계는 자그마치 58단계나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9단계에 비하면 무려 6배가 넘는 셈이다.

일수로 계산하면 미국의 평균 소요기간이 1백75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9백25일이며, 구비서류의 분량을 보면 미국은 평균 23쪽인데 우리는 3백36쪽이나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도성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왜곡된 구조가 결국 한보사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듯 싶다.

좀더 설명하자면 저간의 사정이 이러다보니 시간을 단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기업을 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부패와 불감증 현상이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국운은 아직 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치유불가의 말기 암환자에 이르기 전에 한보사태가 돌출했고 이로 인하여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로 우리 어항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불과 1천일도 채 남지않은 2천년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우리 어항업계는 과연 어떠한 지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수산관련 시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공사외적인 경비지출이 집행된 적은 없는가.

없다면 너 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만에 하나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은 여러 가지 편법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살아남았으나 치더라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과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기술력과 자생력이 겸비되지 않은 기업은 불빛도 밀려들어들 국제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종종 실패하듯이 정부도 정책에 따라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망각하고 가장 중요한 기업체질개선은 외면한 채 해바라기 같이 언제까지 정부가, 정치인이 기업을 감싸줄 것이라는 기대아래 비정상적인 기업운영방법에 의존해서는 21세기의 국제기업환경아래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보사태에서 얻을 교훈은 누가 돈을 얼마를 받고, 그 대가로 어떤 일을 해 주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의 보장, 권력의 분산 그리고 정치개혁으로 집약할 수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합리와 원칙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이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아니라는 명백한 물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에 우리는 보다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자가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공명정대한 사회 국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어항인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일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 번 뒤돌아 보고 되살펴 보자.

韓寶사태의 교훈

왜곡된 사회구조 말끔히 치우해야

자율보장 권력분산 정치개혁으로

내년에 21개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農振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21개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21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올 연말까지 21개 권역에 대한 전체투자금액, 중점사업추진내역 등의 방안을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이들 권역의 종합개발을 지원한다.

시·도별 대상권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 강릉시 연곡 등 2곳 △충남 보령시 외연 1곳 △전북 군산시 옥도 1곳 △전남 무안군 홀동, 여천군 돌산, 진도군 금갑, 해남군 북평, 장흥군 득량남, 보성군 득량동, 강진군 신전 등 7곳 △경북 울진군 오산, 영덕군 강구, 북울릉군 울릉북 등 3곳 △경남 통영군 사랑, 남해군 설

천, 고성군 당항, 통영시 용남, 거제시 사등 등 5곳 △제주도 북군 애월, 남군 성상서 등 2곳이다.

어촌종합개발은 대상지역이

총 2백25개로서 94년 10개, 95년 11개, 96년 17개 등 38개지 역이 추진되었고, 올해는 23개지역이 개발 추진되고 있다.

부산가덕신항 개발사업 민자사업자를 확정

총 사업비 8조5천억원으로 단일 민자유치사회간접자본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부산가덕신항 개발사업의 민자사업자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인 부산가덕신항만(주)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가덕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부산가덕만족과의 사업시행조건 협상을 타결, 이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부산가덕항만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서안(남컨테이너부두)과 경

남 진해시 용원동 앞 해안(북컨테이너부두)을 매립, 오는 2005년까지 컨테이너 전용 10개 선석과 다목적 1선석 등 11개선석을 1단계로 건설키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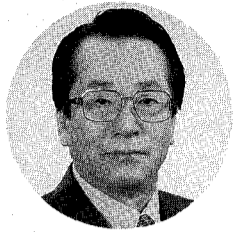
양측은 또 오는 2011년까지 2단계사업인 컨테이너 전용부두 14개 선석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적정 항만 사용료 수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용료 수준과 정부지원범위, 사업자의 항만무상사용기간을 조정키로 했다.

동

정

신상우 장관 95어업총조사 유공자 표창



辛相佑 해양수산부 장관

▲신상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1일 수협중앙회 창립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 7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조난선박구조 및 통신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오닐 IM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 15일에는 95어업총조사 유공자 30여명에게 표창을 수여.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4월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언론 행정의 자율적 감시체제의 제도화'에 대한 심포지움에 참석, 17일에는 일본 수산타임지 상무 노부요시이시자키씨를 접견하고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 21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원식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4월1일 수협중앙회 창립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3일에는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독도사랑 어린이수호대 발대식에 참석, 7일에는 양만수협 청사이전 및 총장 로지스 개점식에 참석, 20일부터 26일까지 북방교역 협력여건 변화와 수산물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을 순방.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4월 17, 18 양일간 포항 동해지부를 순시하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수검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4일 범죄예방자문봉사위원 임원 월례회의에 참석, 8일에는 전남 향교재단전교이사 및 지부회장 연석회의에 참석, 17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 상견례에 참석, 23일에는 동강학원 창립31주년 기념식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4월15일 고경명 장군 순직 제40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 22일에는 송원백화점 익산점 개점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4월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16일에는 대한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 참석, 17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신산업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 18일에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1세기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23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일 광주상공회의소 제16대의원 임원선출에서 부의장에 재선, 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간담회를 개최, 9일부터 12일까지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대한건설협회 주관한 '일건설교류협의회'에 참석, 1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이취임식 및 전국부의장단회의에 참석, 15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자문회의에 참석, 16일에는 ISO 9001 인증서를 획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최근 서울세종호텔에서 화업성적이 우수한 충북출신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

▲장정언 정한중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4월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단회의에 참석, 23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25일

에는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일본 동경지역 등 산업시찰에 참가.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4월17일 삼천포 공사 현장을 시찰.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서기관 승진 △어업지도과 정정환 △선박기술과 한규수 △항만운영과 안민선 △개발과 윤우용 △연근해과 정도훈 △자원조성과 심이부 △신항만기술과 신명 △산업항과 하길용 △해양안전과 김용석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 김공득 △여수항건설사무소장 원용범 △어업지도서관리사무소 이기중(이상 3월 31일자). ◇부이사관 전보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장 박희도 ◇서기관 전보 △국립수산진흥원 위생가공연구실장 박정흠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김안영(이상 4월 1일자)

◇부이사관 승진 △공보담당관 김영성 △비상계획담당관 양성식 △해운정책과장 김하진 △외항과장 한준규 △선박기술과장 이종석 △선원과장 김창남 △산업항과장 남대우 △해양과장 최영섭 ◇서기관 승진 △해운선박국 외항과 선원포 △국제협력관실 강준석 ◇서기관 전보 △항무국 노정과장 임광수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진두현(이상 4월 9일자)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조정제 전 해운산업연구원장을 임명했다.



孫井植 회장 농림해양수산분과위 위원장에 당선

4월28일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 총회에서 손정식 한국어항협 회장(사진 가운데)이 위원장에 당선됐다. <사진 왼쪽 주진우 국회의원(전 수산분과위원장), 오른쪽 박희태 신한국당 원내총무>

당선

<축하합니다>

- ▲양기욱 조합장(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 ▲오무정 조합장(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 ▲정종희 조합장(목포수산업협동조합)
- ▲천금식 조합장(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변경

- ▲신풍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영)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7-7호 우진빌딩 3층으로 서울지사를 이전했다. 전화번호:583-8460.
- ▲조우연씨는 4월3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본부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 ▲황덕환씨는 최근 주식회사한영엔지니어링 수산항관리단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
- ▲성기현씨(전 어업기술훈련소장)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0번지 우성3차 아파트 305동1008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외적

- ▲서승욱씨(수협중앙회 상무이사)의 장남 범식 군이 지난 19일 국회의사당내 국회의원동산에서 화축을 밝혔다.
- ▲김윤수씨(해양수산부 동해어항사무소장)의 장남 정훈 군이 지난 2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 ▲이광수씨(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의 장녀 주희 양이 4월26일(토) 오후 1시 방배동 그린웨딩홀에서 화축을 밝혔다.
- ▲최문환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의 장녀 윤희 양이 4월26일(토) 오후 3시 부산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화축을 밝혔다.
- ▲김만수씨(한국어항협회)의 차남 상용 군이 5월14일(수) 오후 2시 경주시소재 신부본가에서 화축을 밝힌다.
- ▲홍효선씨(해양수산부 어업인복지과)의 장녀 가영 양이 5월24일(토) 오후 3시30분 상록회관 4층 장미홀에서 화축을 밝힌다.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주식회사한영엔지니어링(사장 김한영)
-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

- (회장 최석환)
- ▲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사장 정공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종식)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병남)
-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수삼)
-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봉훈)
- 개인
- ▲이현수씨(동신참치 당산점 사장)
- ▲임무성씨(삼일건설주식회사 회장)
- ▲노승만씨(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장)
- ▲장봉환씨(주식회사티아산업 부회장)
- ▲이창기씨(전 수산청 과장)
- ▲정공일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사장)
- ▲김영환씨(전국수산물중도매업협회 전무이사)
- ▲엄세용씨(중양식품주식회사 차장)
- ▲황재수씨(한국수산신보사 사장)
- ▲안형선씨(전 수협중앙회 이사)
- ▲하성환씨(전 한국어선협회 회장)
- ▲피경만씨(주식회사금촌건설 부사장)

公共工事 책임감리대상 축소

50억원이상 PQ대상공종으로

공공공사의 책임감리대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공사비 50억원이상 PQ대상공종으로 축소된다.

또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중 검측업무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능직건설기술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검 측원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에 반영,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인 감리원에게 공사중지와 재시공권한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감리제도를 지난 94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과 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공사비 5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규정돼 있는 책임감리대상공사를 공사비50억원이상

PQ대상공종으로 축소, 내실있는 감리를 도모키로 했다.

또 감리전문회사의 설립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감리

전남도 97도서현황발간 전국의 62.3%나 차지

전라남도는 최근 일반국민의 도서 이해를 돕고 도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키 위해 도관내 도서의 각종 현황을 조사, '97 도서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남도 관내 도서는 1천9백61개로 전국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유인도는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원과 자본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키로 하고 종합의 경우 인력 25명과 자본금 5억원으로, 토목건축은 15명과 1억5천만원으로, 설비는 10명과 1억원으로 각각 개선할 방침이다.

2백71개로 전국의 57.7%, 무인도는 1천6백90개로 전국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 면적은 전남도의 약 10%이며, 인구는 4만5천8백93명으로 전남도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항은 전남도내 13

종어항 25개중 도서에 18개로 72%, 2종어항은 1백4개중 65개로 62.5%, 소규모 어항은 7백45개중 5백38개로

72.2%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함께 연안항은 5개중 4개가 도서에 위치하고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대폭 현실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품질시험비에다 기타 품질관리가 추가계상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용에 필요한 비용이 대폭 현실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토록하는 등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한데 이어 품질관리비용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종전 품질시험비란 비목을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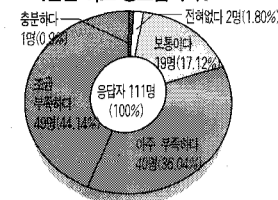
비로 바꾸고 지금까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투입된 실비용의 계상에 그쳤던 품질관련비용을 현실화, 기존 품질시험비에 제반 비용을 추가해 산출 토록 했다.

품질시험비용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시험장비 손료와 공공요금, 일반재료비 등으로 산출하되 여기에 교육훈련 및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검토 등에 필요한 간접비용인 기타품질관리비를 합산하여 품질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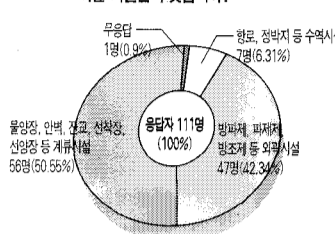
어항어촌발전을 위한 설문서 상보

어항·항만 행정체제 특수성 전문성을 감안, 구분돼야 완공어항 시설미흡, 구조물 재배치등 종합시설 검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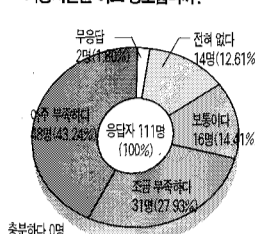
1.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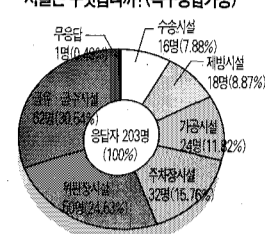
2. 기본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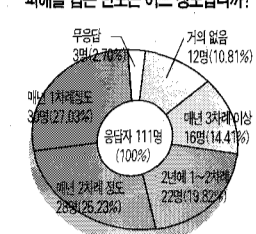
3. 급유 급수 제빙 위판장 수송 가공 등 기능시설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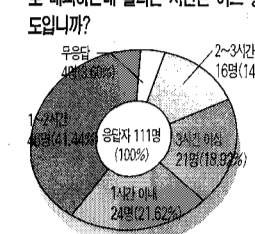
4. 기능시설 중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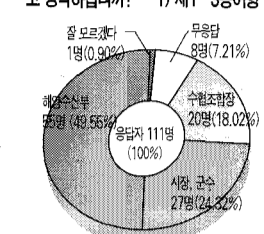
5. 태풍, 폭풍, 해일 등에 의해서 어선의 피해를 입은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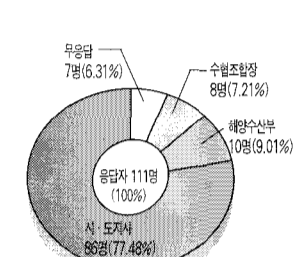
6. 태풍이나 폭풍이 올 때 안전한 어항으로 대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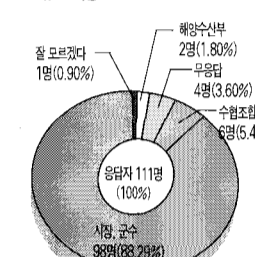
7. 현재 이용하는 어항의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제1·3종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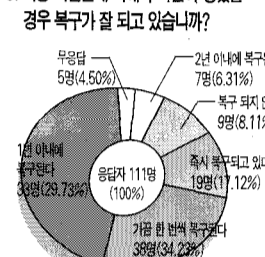
2) 제2종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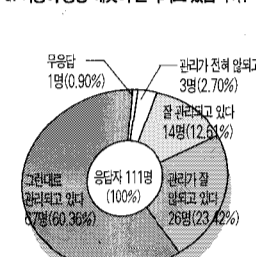
3) 소규모 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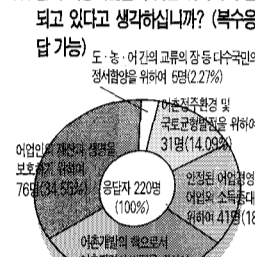
8. 어항 시설물에 피해나 파손이 생겼을 경우 복구 기간이 짧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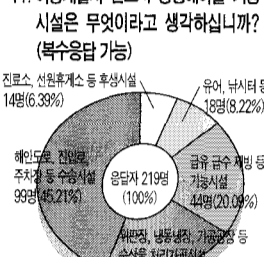
9. 어항이 항상 깨끗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10. 현재 어항개발은 무엇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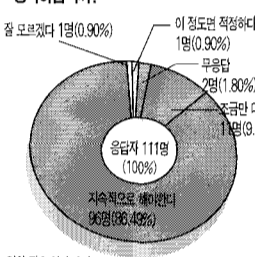
11. 어항개발시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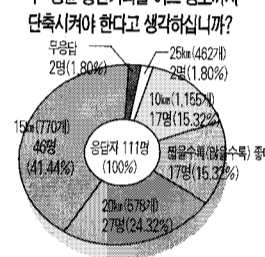
12. 어항개발이 어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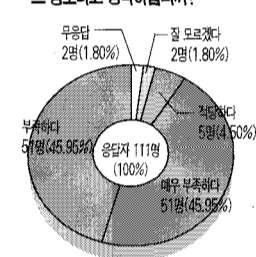
13. 앞으로 어항개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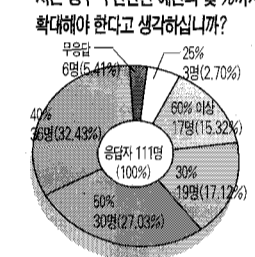
14. 어항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평균 항간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단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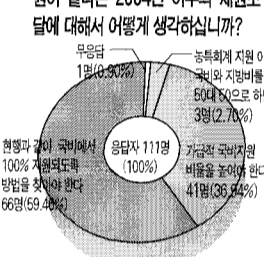
15. 현재 우리나라의 어항개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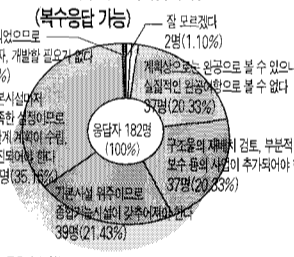
16. 어항개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수산관련 예산의 몇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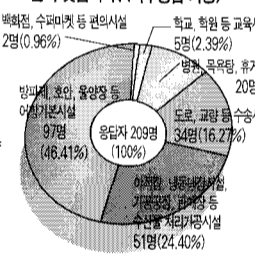
17. 제2종어항의 경우 농어촌특별회계 지원이 끝나는 2004년 이후의 지원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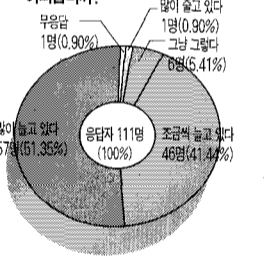
18. 현재 정부통계의 '완공어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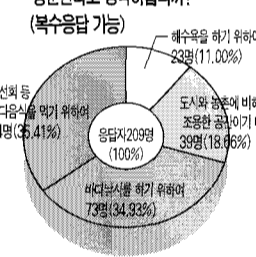
19. 어촌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숙원사업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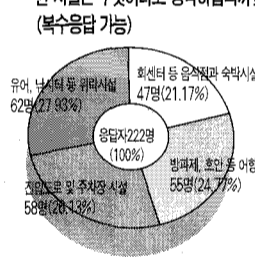
20. 어촌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추이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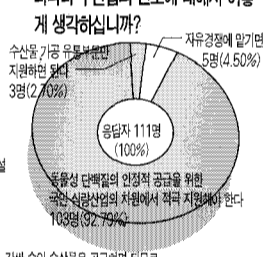
21. 관광객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촌을 방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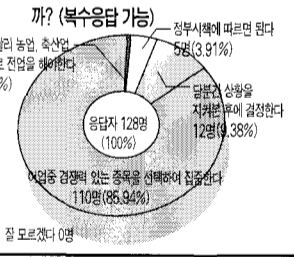
22. 어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급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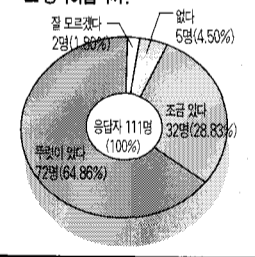
23. 수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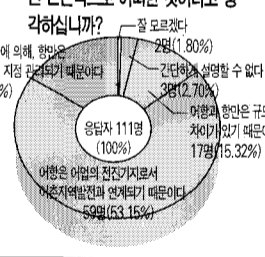
24. 오는 7월 1일 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되면 우리 어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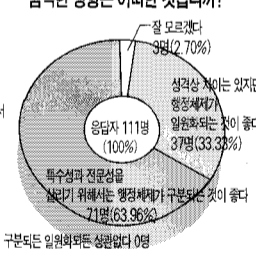
25. 어항과 항만은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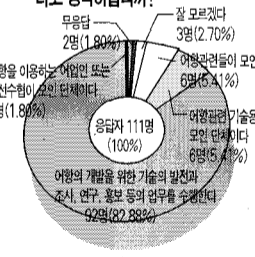
26. 어항과 항만이 성격상 차이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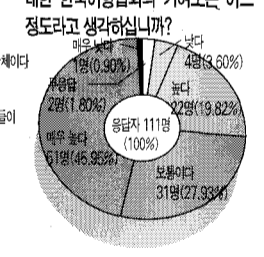
27. 어항과 항만관련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28. 한국어항협회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항어촌 발전에 대한 한국어항협회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항건설 기술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營業種目

- 港灣(一般工業港 漁港)의 調査 計劃 設計
- 埋立工事, 臨海工業團地造成的 計劃 設計
- 運河開發의 計劃 調査 設計
- 防波堤 및 浚渫工事의 計劃 設計
- 公有水面 埋立計劃 設計業務 代行
- 防潮堤 및 干拓事業의 計劃 設計
- 諸般 海岸工作物의 設計 및 施工 監理
- 港灣工事 新工法의 開發 研究 檢討
- 港灣陸上施設(電氣 機械 上屋) 設計 施工 監理
- 港灣開發에 따른 環境影響評價 代行

經營陣 및 技術者

- | | |
|------------------------|-------|
| 代表理事會長
(港灣 및 海岸技術士) | 崔 錫 煥 |
| 代表理事社長 | 李 鍾 聲 |
| 副社長 | 姜 寅 雄 |
| 副社長 | 朴 武 英 |
| 專務理事
(港灣 및 海岸技術士) | 俞 用 源 |
| 常務理事 | 金 鍾 晚 |
| 常務理事 | 黃 仁 燮 |

(株)世光綜合技術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9-44호 전화: 323-9962~5, 323-1667



신장병

기운 없고 '야뇨' 잤으면 의심

인체의 배설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좌우 두개의 신장을 떼어 버린다면 사람보다 세포생명력이 강한 동물이라도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안으로 죽어버린다. 왜냐하면 전신의 60조나 되는 세포조직이 영양대사의 결과 배출하는 노폐물이나 유해물질의 배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장은 어디서 있으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신장은 복부의 후부, 요추의 양쪽에 있는 좌우 한 쌍의 강낭콩 모양의 장기로서, 내면에는 수뇨관, 신동맥, 신정맥이 출입하고 있으며, 외부는 신피막(腎被膜)으로 덮혀 있고 내부는 피질과 수질로 되어 있으며 그 안쪽에는 신우(腎盂)가 있다. 신장은 오줌을 만들어 인체의 체액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 조절하는 장기이다. 신장에는 4~8개의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얽혀 덩어리를 이룬 사구체(糸球體)가 약 100만 개나 있으며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약 20%가 항상 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좌우 신장에는 대동맥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2개의 신동맥이 연결되어 있다. 심장에서 신동맥을 타고 들어온 피는 신장의 사구체에서 분당 120cc정도씩 여과되어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정상인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 배설되는 소변량은 하루 평균 1천5백~2천cc로 사구체 여과액의 약 1%밖에 안 된다. 사구체 여과액의 99%는 체내에 다시 흡수

된다. 신장병은 신기능의 80% 이상이 고장난 다음에야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난치병이다. 게다가 세균감염이나 약물남용을 제외하고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예방을 할 수 없는 질병이다. 신장병은 또 합병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이기도 하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며 복수가 차고 뼈가 부러지며 어린이의 경우는 영양결핍으로 키가 자라지 않게 된다. 특히 한 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되지 않아 평생 투병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로 허덕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식이요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신장병은 신장 내부에 염증을 초래하는 신장염과 신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증, 그리고 신장암으로 대별된다. 신장병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만 빠짐없이 받아도 신장염을 초기에 발견,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신장재단은 이와 관련, 신장의 이상유무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위험신호를 체계화하여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고 있다. 이 위험신호는 아래와 같다. ①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거나 불편한 느낌 ②최근 들어 밤에 화장실 가는 버릇이 생겼을 때 ③소변에 피가 섞일 경우 ④눈 주위 또는 팔다리가 붓는다. ⑤혈압이 높아진다. ⑥늑골 바로 아랫부위가 아프거나 붓는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적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첫째,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의 지급 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1.5 수역시설

수역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항로와 박지이다. 항로 및 박지는 항행 또는 정박하는 선박의 흘수보다 수심이 얕을 경우에는 현지반을 준설(제2장 준설공)하여 조성한다. 박지는 그 이용방법 등에 따라 계류수역, 조선수역 및 착지로 나뉜다. 항로 및 박지의 배치는 그림 1.5.1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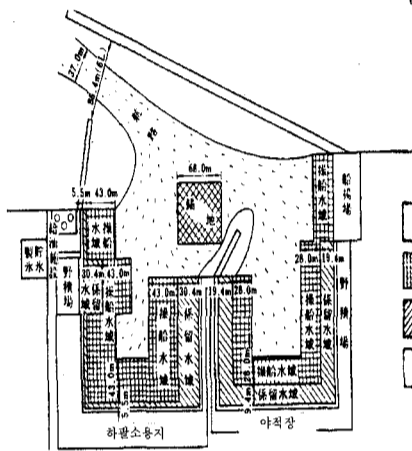


그림 1.5.1 항로 및 박지의 배치도

1.6 수송시설

수송시설의 대표적인 것은 도로이다. 도로는 조성된 용지위에 포장(제

16장 포장공)하여 만들어진다. 어항 관계사업으로 정비되는 도로에는 어항용지내를 지나는 임항도로, 간선도로와 어항을 잇는 어항진입도로, 어촌부락내를 지나는 마을도로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는 일반도로와 같다. 도로포장의 종류에는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이 있다. 경관환경을 고려한 사업에서는 블록, 타일 및 자연석에 의한 포장 등도 있다. 어항관계도로의 평면적인 배치는 그림 1.6.1에, 임항도로의 단면구성 및 배치는 그림 1.6.2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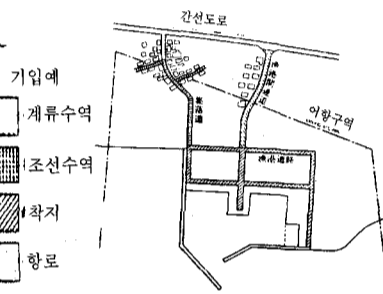


그림 1.6.2 임항도로의 단면 구성 및 배치도

1.7 어항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는 각종 어항시설부지로 조성된다. 준설토 등을 사용하여 매립, 성토(제14장 토공 및 매립공)를 하고, 정지나 포장(제16장 포장공)을 하여 정비한다. 시설용지의 배치는 그림 1.7.1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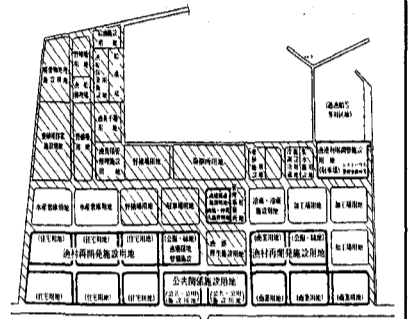


그림 1.7.1 어항시설용지의 배치도

←그림 1.6.1 어항관계도로의 평면적 배치도

범죄피해자구조·형사보상제도

범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국가에서 구조금 지급

우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의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보상금최고액 : 구금일수 × 최저임금액(현재 11,200원)의 5배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원의 한도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의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

생활정보

생활정보